

“자식에 귀감 되고파” 60세에 공무원 도전

현재까지 최고령 합격 57세... 합격해도 임용 불가

30·40대 고연령 취업준비 45.9%... 평균 경쟁률 11.6대1

나이 60에 공무원 9급에 도전하는 이유는? 합격하더라도 곧바로 퇴직 날짜를 기다려야 할 나이에 공무원에 도전하는 ‘최고령자’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제1회 임용시험에 54년생 하모(61)씨가 사회복지직 9급을 시작으로, 제2회 58년생 김모(60)씨가 운전직 9급, 제3회 55년생 김모(60)씨가 운전직 9급, 제4회 58년생 김모(57)씨가 농촌지도사 등에 각각 응시서류를 접수했다. 올해도 제1회 임용

시험에 59년생 정모(56)씨가 사회복지직 9급, 제2회에서는 55년생 곽모(60)씨가 방재안전 9급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하지만 공무원 정년인 60세에 서류를 접수한 ‘최고령자’는 합격통지서를 받기 전에 서류전형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 합격하자마자 퇴직할 합격자를 임용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으며, 지금까지 최고령 합격자는 지난해 제2회 행정9급에 합격한 58년생 김모(57)씨다. 지난해 제1회 최고령 합격자는 68년

생 사회복지9급 문모(47)씨, 제3회와 제4회에서는 각각 61년생 운전9급 김모(54)씨, 64년생 농업9급 박모(51)씨 등이었다.

갈수록 공무원 되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이들 고령자들이 ‘공직’에 입문하고자 하는 이유는 갖가지다. ‘안정된 직장을 한 번이라도 가져보고 싶어서’, ‘직장 명퇴 후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독특한 이유는 ‘자식에게 자금을 주기 위해서’다.

전남도 관계자는 “60세 지원자의 경우 생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변수는 있지만 합격하더라도 공무원이 되기 어렵다”며 “그런데도 접수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자녀에게 본인이 노력하

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라고 대답했다.”

취업, 진학, 창업 등을 앞두고 ‘세상의 파고’와 싸우고 있는 자녀에게 자력과 힘이 돼주기 위해 ‘부모’가 직접 공무원 시험에 도전한다는 것이다.

한편 올해 전남도 제2회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1009명 선발에 1만1745명이 접수해 평균 11.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가 6351명(54.1%), 30대가 4619명(39.3%), 40대 이상이 775명(6.6%)으로, 30대 이상이 45.9%로 절반에 달하고 있다. 40대 이상은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있지만, 매년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전남 대안학교 하반기 무상급식 추진

도, 추경예산 반영 검토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을 중단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가 이르른 올 하반기부터 전남도내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역자치단체장의 이념이나 성향에 따라 무상급식 수혜 학생의 폭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와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대안학교 학생들의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는 23일 “지난 20일 전남도내 대안학교 13곳의 관계자들과 무상급식과 관련 간담회를 갖고 대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대안학교 관계자들은 정상적인 학교교육체계에서 이탈한 학생들에게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전남도에 요청했으며, 전남도는 전남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종교와 관련되거나 특성화 학교를 제외한 9개 학교의 300여 명의 학생을 무상급식 대상자로 파악하고 있다. 타 시·도 거주학생의 경우 포함시킬지 여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 무상급식 대상자 명단을 최종 결정할 뒤 전남도의회 협의, 추경예산 반영 등을 거치면 올 하반기에는 무상급식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남도는 보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에 최경란 교수

10월 15일~11월 13일 열려

오는 10월 개막하는 ‘201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에 최경란(여·52)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장이 선임됐다.

광주시와 (재)광주디자인센터는 23일 “총감독 추천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광주시장의 승인을 거쳐 최경란 교수를 ‘201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최 감독은 서울대에서 산업디자인을 전공한 후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UCLA)에서 석사, 시카고 일리노이즈공과대학(IIT) 디자인연구소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10 서울 디자인한마당 총감독, 2011

이탈리아 트리엔날레 밀라노 디자인뮤지엄(Triennale Di Milano Museum) 초청 기획전 큐레이터, 2012 UNESCO 창의도시 일본 나고야 국제디자인센터 ‘korea+ Japan Design’ 전시 큐레이터, 2015 프랑스 생테티엔 디자인비엔날레 한국관 초청 큐레이터 등을 역임했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올해부터 광주비엔날레에서 분리되며, 광주디자인센터가 주관해 10월15일부터 11월 13일까지 30일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등에서 열린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완구 총리, 헬기사고 순직 경찰관 조문 이완구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항공단 소속 경찰관 4명의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목포 호사랑장례식장을 방문, 조문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연합뉴스

리관유 전 싱가포르 총리 타계... 박대통령 “우리 국민의 친구” 애도

경제변영 기틀 싱가포르 ‘국부’... 박대통령, 29일 국장 참석

싱가포르 경제적 번영과 사회 안정의 기틀을 세운 ‘국부’로 존경받는 리관유(李光耀) 전 싱가포르 총리가 23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91세. <관련기사 8면>

싱가포르 총리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리 전 총리가 오늘 새벽 3시18분 싱가포르 종합병원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며 “리선룡 총리가 매우 슬퍼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 전 총리는 지난달 5일 폐렴으로 입원한 뒤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리관유 전 총리 서거에 대해 “애통함을 금치 못하며, 리선룡 총리를 비롯한 유가족과 싱가포르 국민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리 전 총리 서거에 즈음한 성명”을 내고 “고인은 수차례의 방한으로 한국과도 각별한 인연을 쌓았으며 한-싱가포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귀중한 지혜를 주신 우리 국민의 친구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외국 정상급 지

도자의 서거에 대해 성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리 전 총리와 대(代)를 이어 각별한 인연을 맺어왔다. 박 대통령은 성명에서 “싱가포르 국민에게는 추앙받는 지도자이시며, 세계 지도자들에게는 큰 귀감이 되신 리관유 전 총리의 영면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9일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거행되는 리관유 전 총리 국장에 참석한다고 청와대가 23일 발표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개최되는 리 전 총리 국장에 참석하고, 리 전 총리 아들인 리선룡 현 총리 등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성명을 발표해 리 전 총리의 타계에 깊은 애도를 전하고 리 전 총리의 가족, 싱가포르 국민과 정부에 위로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세월호 특조위 내부자료 무단 유출”

이석태 위원장 “정부·여당이 독립성 훼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은 23일 특조위 내부자료가 청와대와 정부, 여당, 경찰에 무단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특조위 임시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이 특별조사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흔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조위 실무지원단 공무원이 청와대와 새누리당, 해양수산부, 경찰에 업무내용을 이메일로 보냈다”고 말했다.

해당 공무원은 해수부 소속 A사무관으로 밝혀졌다. 특조위 관계자는 “자료는 매주 작성해 특조위 소속 위원 및 직원에게 배포되는 3월 20일자 ‘세월호 특조위 임시지원단 업무 추진상황’ 문건”이라면서 “이를 유출한 것은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조위가 공개한 이메일에 따르면 A 사무관은 “-주간업무보고”란 이름의 한글 문서 파일을 특조위 내부 관계자뿐 아니라 ‘감모 국장’과 ‘송모 국장’, ‘박모 수석전문위원’, ‘방배경찰서에서 보낸 것으로 돼 있다. 특조위측은 수신자의 이름과 이메일 서버명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듬해 당·정·청과 경찰 관계자인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여당이 제기한 ‘예산낭비’ 논란에 휘말려 출범이 지연돼 왔다. 특조위 설립준비단은 지난달 17일 위원회의 규모와 예산을 120명과 192억원으로 정한 직제·예산과 시행령안 등을 정부에 넘겼지만, 이후 한달이 넘도록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1636 결과 **믿음소망** 말하세요

인생에 대박찬스 한글전화번호 **1636**에서 잡으세요!

1636 KTX, 1636 롯데면세점, 1636 삼성카드, 1636 KBS, 1636 YTN

지금 잡으세요! 기회는 한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전국민 모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 국가보훈과 IT가 하나되어 펼쳐진 사업
• 전국 1%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
• 불경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업
• 평생 연금처럼 보장받는 사업

대리점(사업자) 모집
영업사원 모집(생활보장)
지사장 김연호 010-8607-3228

2014미스코리아 “홍 김사연” 양이 전국으로 활동하며 모든 당사자들이 (주)클리어의 홍보대사로 활동합니다.

2015년 **부동산 핵심유망지역 투자전략 세미나**

현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를 낱알이 밝히고 국토계획법에 근거한 부동산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장소 NC백화점(구. 현대) (10층 문화센터)
일시 2015. 3. 26(목) 2시/7시
문의전화 (062) 383-1330(사전 예약)

강/의/내/용

- 상반기 부동산 소액투자 전략
- 돈되는 부동산 투자법 공개
- 부동산 가격상승 핵심지역 분석
- 개발 유형별 토지 투자가격 분석
- 광주 전남 개발계획에 따른 토지투자처 및 확실한 투자전략법 공개
- 가장 미래가치가 있는 땅은 어디인가?

김영표 부동산 실전문가

(현) 영지R&D 부동산연구소 대표
(현) 영지부동산 아카데미 대표
(현) 각종 관공서 및 대학교 초빙 특강 강사
(현) 전국 순회 부동산 세미나 80회 이상 강의
(현) 롯데백화점 및 각종 백화점 문화센터 특강 강의
뉴스웨이 인터넷신문 합법 게재중

NAVER 영지R&D부동산투자연구소

말하는 법 1%만
바뀌어도 인생이 바뀝니다.
시작하면 됩니다.

http://www.kleader.kr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어머니 스피치 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취업을 맞춤 지원하는 **면접 준비 실전과정** 성공을 부르는 말하는 기술 **스피치 리더십 과정**

명강사 육성과정 강의 스킬을 배워서 강사활동을 하십시오 **강사 파견 업무** 각 분야별 명강사 파견해 드립니다.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062)222-2255 / HP. 010-9441-7000
진학 문의하신 후 자세한 안내를 우송하여 드립니다.